

'24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12	12.19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5	3	0	3	11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송편성	지역 관련 정보를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바람	<시사톡 라이브>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12.24), 2025년 바뀌는 제도와 정책(2025.1.3.) 등 방송 조치	'24.12.
보도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김치산업 어떻게 키우나?’ 편, 실질적인 개선방안,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12. 3. 계엄 및 탄핵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단죄 없는 역사 속 내란 재발.. “내란 책임자 신속히 처벌해야”(12.20), 탄핵 정국, 야권의 역할은? 생방송 토론(12.26), <뉴스투데이> “대통령 탄핵·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12.20), “2025년은 정치 격변의 해”(1.2) 등 방송 조치	”
”	인구감소와 노령화, 저출생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정책이나 지원제도 등 보도 필요	<뉴스투데이> 어려운 농어촌 고향사랑 기부로 ‘돌파’(12.27), 광주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사업(1.2), <뉴스데스크> 광주청년 절반 “기후변화로 결혼·출산 걱정”(12.28),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답이 있다(12.23) 등 방송 조치	”
”	5·18항쟁과 이번 계엄 사태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바람	<뉴스데스크> ‘죽은 자가 산 자라를 구한다는 것’(1.1), <뉴스투데이> DJ부터 K-민주주의까지(12.26),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 지켜내”(12.27) 등 방송 조치	”
”	AI 정책 등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정회)	<뉴스데스크> ‘AI 기본법’ 국회 통과 AI 집적단지 탄력(12.28) 등 방송 조치	”
교양	<남도탐구생활> 정보 내용을 도표 등 시각적 화면 제공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톡 라이브>, 시사 외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내용 바람	<시사톡 라이브> 한 주 스포츠 소식(12.23), 스포츠 하이라이툼(1.13), 기부 나눔 특집(12.24), 아동 발달과 부모의 역할(12.25), 2024 대한민국 이수한강 노벨상 수상(12.30) 등 방송 조치	”
”	창사 특집 <남도탐구생활> 야외 진행, 음향, 조명 등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기타	인터넷 매체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홍보 매진 바람	뉴스 방송 시 유튜브 구독 안내 상시 방송 등 조치	”
”	폐지 프로그램 홈페이지 정리 필요	해당 프로그램 종영 프로그램 페이지로	”

		이동 조치(12.20)	
”(방심 위 의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가요를 청소년 보호 시간대 방송 유의 필요	편성 책임자 의견 전달 및 관련 규정 준수 권고 조치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방송편 성	지역 관련 정보를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바람(박종수)	지역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김치산업 어떻게 키우나?’ 편, 실질적인 개선방안, 홍보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부족 아쉬움(김안나)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 앞으로도 의견제시 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방송하겠음	○		
"	12. 3. 계엄 및 탄핵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람(유한별)	지역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음	○		
"	인구감소와 노령화, 저출생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정책이나 지원제도 등 보도 필요(이경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며, 지역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음	○		
"	5·18항쟁과 이번 계엄 사태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바람(정인영)	5.18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계엄의 문제를 짚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음	○		
"	AI 정책 등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정희)	지역의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적극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교양	<남도탐구생활> 정보 내용을 도표 등 시각적 화면 제공 필요(박양우)	프로그램이 종영됐으나,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에 참고하겠음	○		
"	<시사특 라이브>, 시사 외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내용 바람(강필오)	시사가 주요 내용이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안을 짚어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음	○		
"	창사 특집 <남도탐구생활> 야외 진행, 음향, 조명 등 아쉬움(김동진)	프로그램이 종영됐으나,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에 참고하겠음	○		
기타	인터넷 매체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홍보 매진 바람(김동진)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		
"	폐지 프로그램 홈페이지 정리 필요(이경주)	폐지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뒀으며, 즉시 정비하겠음	○		
" (방심 위 의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가요를 청소년 보호 시간대 방송 유의 필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지 않도록 제작 시 더욱 유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12월)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안나 · 김동진 · 박양우 · 박종수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정인영 · 정희 위원 (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비상계엄이라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광주MBC가 본분을 다하고 있어 다행이다. 최선을 다해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이달에 끝난다. 저는 자택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게 된다. 광주비엔날레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오늘 회의는 2024년 마지막 회의다. 1년 동안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광주MBC에 감사드린다. 1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셨는데 아쉬움이 크다. 서울로 가시더라도 시청자위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겪으니 저희는 5.18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광주MBC가 이 혼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한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길 바란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11월 22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전국 16개 지역 MBC에 동시 송출했다. 우리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만큼 5.18의 상징적 의미가 전국에 전달됐으리라 기대한다. AI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12월 초 제작 완료해 방송할 예정이다.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로서 광산구청장 타운홀 미팅 녹화를 진행했고, 11월 28일 광주시 창업 페스티벌 토크콘서트, 12월 5일 AI 특집 다큐 <AI 도시 광주를 가다> 방송, 12월 7일 <푸른 뱀 해를 품다> VX 스튜디오 녹화, 12월 7일 <아시안 탑 밴드 2> 녹화, 12월 12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 공연 녹화 등을 진행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12월 27일 <시사톡 라이브> 송년 특집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푸른 뱀 해를 품다>, <아시안 탑 밴드> 시즌2 제작, <한국의 괴물> UHD 제작, 광주시 5개 구청 타운홀미팅 녹화 및 편성 등을 계획 중이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12.3 내란 사태 관련해 집중취재하고 연속보도를 시행했다. 12월 4일 <뉴스투데이>부터 시작해서 <뉴스데스크>까지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평상시 <뉴스데스크>보다 2배 이상인 30분을 편성해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전남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 지역 MBC 소식을 광주MBC를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평균 시청률 25%를 보이기도 했고, 유튜브 구독자가 10일 만에 1만 명 이상 증가해 현재 14만 5천 명 정도다.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집중취재했는데, 행사 당일 광주 김치산업의 현황 등을 보도하고, 영국 킹스턴구의 김치학교 설립 취지와 전망 등도 다뤘다. 전국 방송이 2회 있었으며, K-전라도 김치 성공의 가능성을 의제화했다. 창사 60주년 특집 연속 기획보도 <나와 광주MBC>는 마무리했다. 광주MBC를 통해 인생이 바뀐, 인생을 바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소리꾼 김소진의 광주MBC>, <국립공원 승격 이끈 무등산 지킴이들>, <교통문화 바꾼 푸른신호등의 교통통신원들>, <타이거즈와 함께 한 40년, 김재요 해설가>, <광주MBC의 목소리 나선희 아나운서>, <폭도라 부를 수 없다, 노성대 전 사장> 편 등을 방송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 김치산업 어떻게 키우나?', '기아타이거즈, 내년 시즌 전망은?', '12월 12일 탄핵사태 앞으로의 정국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포털사이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지역 매체 특별입점 실패를 교훈 삼아 준비를 더 잘하고자 한다. 다음카카오 입점을 비롯해 2025년 상반기 예정된 네이버 포털 입점을 위해 뉴스의 정량, 정성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라디오 종합뉴스 신설 등 뉴스 플랫폼 확대와 뉴

스 유튜브 구독자 배가 등 노력도 기울이겠다.

○ 박양우 위원장 : -한 달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비상계엄 상황 등으로 인해 시청자의 관심이 언론에 집중돼 있다. 정론의 길을 자주길 바란다. 그럼, 시청자위원의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시사용광로> '기아타이거즈 내년 시즌 전망은?' 편에는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진행과 나지완 야구 해설위원, 김여울 광주일보 기자가 출연하여, 우승 원동력, 이범호 감독, 우승 주역이 된 선수, 내년 시즌 전망, 전력 예상, 수비실책 1위의 오명을 벗어나는 방법, 포지션별 강화 지점, 폭발적 흥행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야구 응원과 관람이 하나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었고, 신구 선수의 조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타 구단에 대한 전력 분석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거로 생각한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KBO MVP! KIA 타이거즈 김도영 인터뷰를 시청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KBO MVP 선수가 된 기아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를 인터뷰온에서 시즌 동안 신경 쓴 부분, 부상으로 인한 재활 방법, 기억에 남는 순간, 아쉬웠던 부분, 롤모델, 스타성 등을 인터뷰해줬다.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청할 수 있었다. 타이거즈를 대표했던 스타성 있는 선수들처럼 성장해 나가기를 함께 바란다. 딱딱하지 않은 인터뷰 만들어주셔서 더욱 좋았다. 한강 작가의 자취를 따라... 각광받는 광주와 장흥 제하의 보도에서는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와 더불어,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의 고향으로 문학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흥의 '한승원 문학관', '한승원 산책로 길' 등을 알려줬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인물에 대한 다양한 방송이 함께 있어서 특히 좋았다.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신종 비만약 GLP-1 유도체 효과와 부작용 편에서는 박정희 조선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가 출연하여, GLP-1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 부작용, 우려, 주의사항,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 균형 잡힌 시사 이슈 분석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인 <시사톡 라이브>를 즐겨 듣고 있다. 시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 김동진 위원 : -광주MBC의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통해서 세계 김치의 날을 알리고 다양한 기관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시청자위원인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우리의 고유 음식문화를 알리는 MBC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준비해주신 여러 임직원분에게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올린다.

-광주MBC가 타 MBC와 차별화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지난 시청자위원 의견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드렸다. 아울러 지난달 있었던 김치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구체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시다시피 광주MBC는 광주의 맛과 멋, 빛, 소리 등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 확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광주대학교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광주MBC가 환갑을 맞아 방영한 <남도탐구생활> 특별생방송을 매우 즐겁게 시청했다. 자체 제작했던 프로그램들을 돌아보며 추억을 떠올리고 즐거운 만남을 나누는 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만 야외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조금 더 전달력 있는 음향과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면 현장에서의 소통이 줄어드는 대신에 더 효과적이고 전달력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아카이브로서 더욱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방송 내내 패널들 뒤로 보이는 강한 빛의 패널이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고 음향 역시 생방송이라 더욱 그랬겠지만 다소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

-광주MBC의 유튜브 채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홍보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김안나 위원 : -11월 21일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김치산업 어떻게 키우나?’에서는 방송을 통해 산업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한 점은 긍정적이나, 김치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나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12월 6일 뉴스 ‘한 걸음 더’의 ‘언론 검열의 역사적 교훈’에서는 1980년 5.18 당시 언론 통제의 실상을 상세히 다루며, 언론 검열과 그로 인한 광주MBC의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현재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좋은 보도였다.
- 박종수 위원 : -11월 28일 <남도탐구생활>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2음식물자원화 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시청자에게 설명하였다. 12월 20일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집중관리기관으로 이때까지는 가정에서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과 이 기간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시청자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남도탐구생활>이 이날 마지막 방송을 하였는데 김귀빈 아나운서와 이다솔 아나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에 많은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준 많은 제작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 관련 정보를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남도탐구생활>에서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집중관리에 관해 다뤘다. 김장철을 맞아 쓰레기 관리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올바른 김치 쓰레기 관리에 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에서 김장철을 맞아 특별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김치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게 되어 광주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 믿는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제공도 좋았지만, 종량제 봉투 사용 등 김치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보 내용을 도표로 보여주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다. 앞으로 시각적 화면 제공에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
-<남도탐구생활>에 소개된 <한국의 괴물> 제작기에서는 한국적 민간신앙을 탐구한 보기 드문 걸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프로듀서의 바람대로 광주·전남 일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탐사로 이어져 우리나라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한국의 괴물> 연작 프로그램들은 도깨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괴물을 소개해 주는데, 단순히 교양 프로그램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문화와 경제 파트와도 연계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시키는 좀 더 심층적, 입체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면 대단한 역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작비용과 관련해서 방송드라마나 영화, 게임 관련 회사들과 접촉, 협찬 또는 광고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주 남파고택 김선경 차종부에 관한 프로그램 잊혀가는 전통 식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전통 문화의 보존과 승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문화적 의미도 아울러 겸비한 내용이었다.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무리겠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식문화를 보존해온 경위, 식재료 선정부터 조리법 등 이 종가댁의 식문화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으로 보강한다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에 식당을 개업한 것만이 아니라 이 전통 식문화를 어떻게 현대에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전통 문화적 시각과 아울러 현대적 시각에서 음식 콘텐츠 산업으로의 변환을 모색하는 문화산업화 방안도 필요하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12.3 계엄 사태와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은?’ 편에서는 계엄 사태 및 이후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 패널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놓고, 특히 탄핵(방송 당시 탄핵 가결 전) 가결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 요령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탄핵이 한 차례 불성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힘 의원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게 참담하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주MBC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광주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많은 시청자가 그 보도에 신뢰를 갖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벅찼다. 특히 비상계엄 보도를 촌촌히 하는 중에도 한강 작가의 수상, 광주시민의 한강 작가에 대한 축하의 마음 등에 대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충실히 다뤄 주어 절망과 분노의 시대에 작은 희망과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광주·전남 요양병원 급증, 산부인과·소아과 감소’ 뉴스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저출생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현상에 대한 실질적 통계 기반 뉴스 보도로 신뢰도가 높아 보였다. 다만, 이 현상을 대비한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원제도 등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보도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후속 취재를 통해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환기해주면 좋겠다.

-<남도탐구생활>에서는 시청자 참여를 위한 오픈채팅방 QR코드를 노출한다. 주 시청자층이 QR코드를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오픈채팅방에 약 3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도입될 시기인 것 같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레거시미디어의 장점을 살리고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제작과 OTT 플랫폼과 연계된 시리즈 콘텐츠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폐지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 등은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 정리 또는 리뉴얼 또는 폐지 프로그램이라는 표시 등이 적절해 보인다.

- 이숙희 부위원장 : -12월 정말로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내던 것 같다.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참석하면서 전광판에 나온 뉴스는 MBC 뉴스특보를 인용했다. 어쩌면 그것은 국민의 정서에 가장 합당하고 정직한 채널이어서이었을까? 시청자위원으로서 뿌듯했다. 2025년에도 중립적이면서 공정한 방송이 되길 기원한다. 힘들 때일수록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 MBC에 시청자위원으로서 긍지를 느낀다. 2025년에도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 정인영 위원 : -<시사용광로> 12월 12일 방송분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대통령의 발언 직후 처음으로 편성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주요 중앙 언론에 나온 국민의힘 측 패널들이 대통령의 국기 문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측 패널의 사과로 토론이 시작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계엄 사태는 광주 5·18민중항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 지역민에게 5·18항쟁은 일상에서 체화된 역사적 경험이지만, 최근 사태를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특히 20대 여성들이 이를 계기로 5·18항쟁을 과거의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닌 지금의 의미로 연결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MBC는 기존에 제작한 훌륭한 광주 5·18항쟁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전국의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집하여 특별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5·18 항쟁과 이번 계엄 사태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광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5·18민중항쟁과 이번 계엄 사태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국단위가 아닌 광주MBC만의 고유한 시선과 기획 아래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광주MBC가 축적해온 역사적 콘텐츠와 해설 능력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희 위원 : -<AI 도시 광주를 가다>는 50분 정도 분량인데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I의 핵심 거점 광주를 소개하였고, 왜 광주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미래산업을 요청한 강기정 시장의 노력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을 추구함을 알게 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수준을 제고하는 모습은 AI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보여주는 좋은 사례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실시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 CCTV를 활용할 예정이다. 빛고을의 빛이 물리적이라면, AI는 광주광역시 미래 산업 빛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I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시사톡 라이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꽃잼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광주관광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주에 이어 여행 만족도 전국 2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음식에 대해서는 전국 1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진강 사장의 “권있는 여행지” 광주라는 개념은 특히 주목된다.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다. 라디오 <놀라운 3시>에서 ‘선전성, 유해약물’ 등의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가수 안혜지의 <오늘

밤>이라는 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심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지키는 것은 물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시청취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작 시 개선하길 바란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2024년 1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